

눈물 마를 날 없는 세월... 2014년 4월 16일에 멈춰버린 삶

끝나지 않은 기다림... 못다한 이야기들

세월호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하물며 희생자 가족들이라면 어떠하겠는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과 고(故) 정동수군의 아버지, 아직 찾지 못한 허다운양의 어머니에게서 세월호가 바꿔버린 삶과 못다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우리 가족 삶 송두리째 바뀌... 딸 품에 안고 집 돌아갈 것”

미수습자 다운양 어머니

희귀병 악화 오른쪽 청력 없어
“이런 참사 다시 생겼선 안돼”

“우리 가족의 일상은 2014년 4월16일에 멈춰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5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딸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단원과 2학년 2반 허다운양을 기다리는 어머니 박은미(48)씨는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애타를 찾았을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간다는 마음 하나로 지난 3년을 버텼다.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박씨는 한 곳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 희귀병인 신경섬유증을 앓고 있었다. 딸

을 3년째 찾지 못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상태가 더 악화됐고, 뇌압 상승으로 인해 결국 오른쪽 청력을 잃었다. 세월호 전체 조사위원회가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지난달 29일에는 면담 중 실신하기도 했다.

목포신항 '미수습자 가족 만남의 장소' 컨테이너 앞에서 만난 박씨는 딸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색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 어두운 안색을 한 박씨는 “세월호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사고 이후 남편은 20년 넘게 해오던 철재 가공일을 접고 진도와 목포에 함께 내려와 오직 다운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더 더위지기 전에 찢기고 녹슨 세월호에서 다운이를 찾아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이는 어렸을 때 물놀이 사고로 당해 평소에도 물을 무서워했다”며 “지난 3년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말했다.

박씨에게 지난 3년간의 무참한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은 바로 ‘다운이를 찾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었다. 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세월호 인양과 육상거처가 최종적으로 지난 11일 성공함에 따라 희망은 더욱 커졌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국에서 목포신항을 찾은 시민들이 손과 등을 닦으며 건넌 위로의 한마디가 박씨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

박씨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선 안 된다. 세월호 안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인 안전한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가 3년 만에 무사히 올라온 것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진행될 작업도 지금처럼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

“세월호 올라왔지만 끝난게 아냐... 진실 규명 끝까지 할 것”

유가족 동수군 아버지

유치장형·삭발 등 모진 세월
“마무리될 때까지 목포 안떠나”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먹고살기 바쁜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세월호 조사와 진실 규명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단원과 2학년 7반 동수군 아버지 정성욱(46)씨는 3년 전 평범한 회사원에서 지금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돼 목포 신항을 지키고 있다. 정씨는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적고, 놀아주지도 못한 탓에 추억이 별로 없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만해도 아침이면 일찍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평범한 아빠였다. 하지만, 현재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2014년 4월 16일 아들이 수학여행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가버린 후부터다.

정씨는 자신 같은 유가족이 또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부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무원행 방해죄로 경찰에 연행돼 유치장에도 다녀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도 참여해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특별법 개정안 촉구를 위해 또 다른 희생자 예은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와 함께 삭발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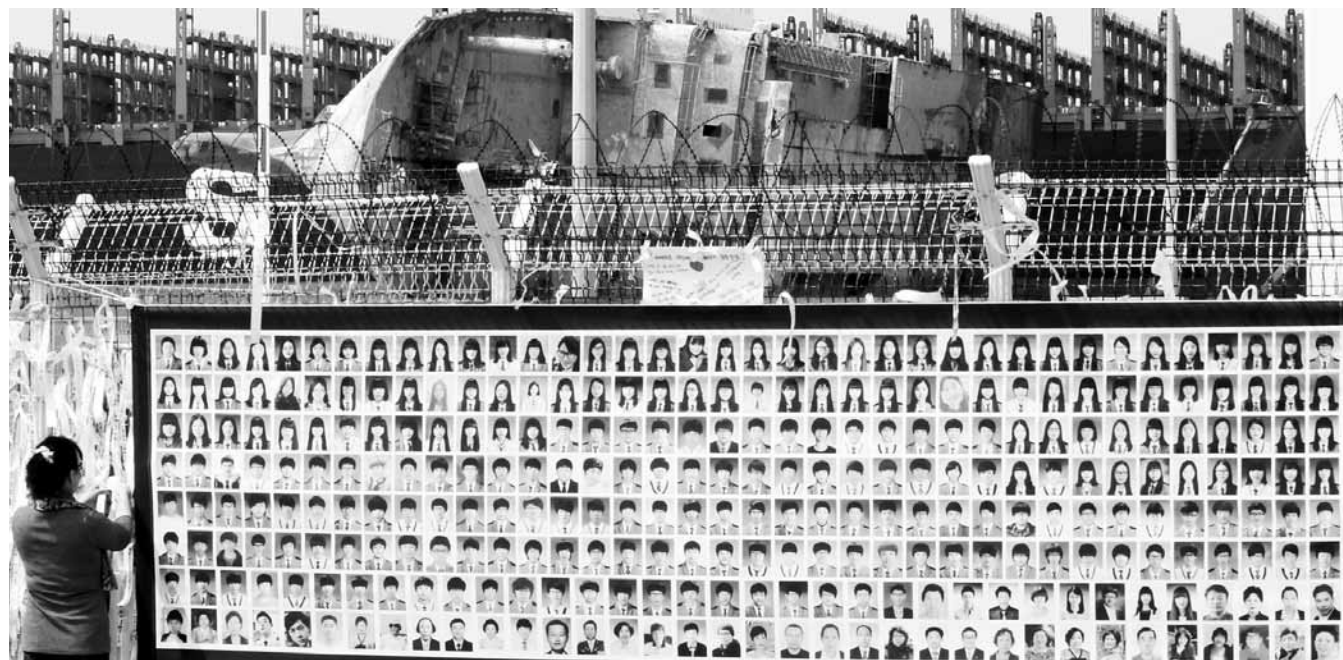
20개월 전부터는 희생자 가족들이 동거처에도 마련한 감시초소에서 침몰현장을 지켰다. 세월호가 떠올랐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바다 위로 떠올랐지만, 죽은 아이 생각에 눈가가 축축해진 것이다.

이제 배가 물로 올라왔으니 선제조사사를 통한 진상규명만이 남았다. 4·16가족협의회와 선제인양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배가 올라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9명의 미수습자도 찾아야 하고, 선제조사와 진상규명이 남아있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살아서 못 왔지만, 선제 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죽은 이유라도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선제조사, 사고해역의 유실물 조사 등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1년이고 2년이고 목포를 떠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선제조사, 진실규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사람이 먼저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안전규제를 강화해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전과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목숨을 돈으로 따지고, 하찮게 여기는 나라는 또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전은재기자 e6j621@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목포신항에서 한 추모객이 노란 리본을 부두 펜스에 묶고 있다. 304명의 희생자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이 걸린 펜스 뒤로 옆으로 누운 세월호가 보인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

무너진 패널벽·위태롭게 매달린 구조물... 처참하고 위험

세월호 내부 둘러보니

안정·화장품 가방 등 발견

“세월호 내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처참하고 위험천만했다. 옆으로 누워 있다보니 견고한 쇠 벽 외에는 전부 주저앉았고 가드레일, 사다리, 계단 등 그나마 남은 구조물도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13일 세월호 외벽을 세척한 코리아살베지 류현열 대표가 가까이서 들여다본 선체 내부의 모습이다. 코리아살베지는 이날 2명씩 6개조의 세척팀을 비롯해 총 18명을 투입, 그가 사다리처럼 물을 뿌리며 세월호 외벽에 붙은 펠과 조개류 등을 씻어냈다.

류 대표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있다 보니 세월호 내부 통로의 폭은 3m, 높이는 8

층 가량이다. 이 곳에는 객실이 있었지만, 다 내려앉고 말았다.

류 대표는 “쇠 벽(Steel Wall)으로 돼 있는 부분은 살아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등은 다 아래로 쓸려 내려와 있다”며 “전체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은 녹이 슬어 있다”고 처참한 내부를 묘사했다.

코리아살베지는 1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세척 작업을 진행한 뒤 내부 상태를 파악하는 조사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선체 내부 미수습자 수색 작업은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이후 본격화된다. 김창준 선제조사위원장은 이날 “그 동안 입수한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내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16일 오후 해양수산부, 미수습자 가족들과 논의해 최종 진입 방법과 수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15일까지 선체 외부세척, 워킹타워 설치, 우현 선측(천장) 안전 난간 설치, 선내 방역, 위해도·안전도 검사를 진행한다. 워킹타워는 주로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다. 철제빔을 여러 개 세우고 그 사이에 계단을 설치한다.

사고원인 규명도 병행된다. 선제조사위는 영국 감시기관 ‘브룩스벨’과 함께 외부 충돌설, 내부 폭발설, 선체결함 등 세월호 침몰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 수습본부는 이날 유류품 3점을 추가 수거했다. 외부 세척 작업 중 의류(후드집업) 1점과 담요 2점을 발견했다. 이로써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107점, 뱃조각은 20점이 됐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청소년 10명 중 8명 “세월호 명확한 진상규명 안돼”

전교조 청소년 의식 조사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83.4%의 청소년들은 수업 등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싶다고 답해 교육계가 계기 수업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세월호 3주기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가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중고생 1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청소년들의 79.3%는 책임자 처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88.9%는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여전히 마련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제 중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문제를 가장 먼저 밝혀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41.2%로 가장 많았다.

참사 이후 하고 싶은 행동으로는 진상규명 촛불집회 참석(39.1%)이 가장 많았고 노란리본 달기(35.9%), 진상규명 서명 동참(33.7%), 세월호 수업 참여(32.2%) 등의 순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함바’ 운영권 미끼 수억원 팔걸



○--신도시 조성 공사장 함바(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챘 50대 건설업자가 구속.

○--13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모(55)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동탄신도시 공사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 혐의.

○--이씨는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겨 이를 무마해야 한다고 추가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공사현장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기꾼이었다”고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H.010-3605-5000

광양, ㅅ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임야 ◆ 삽니다

신속 / 당일처리!
(주)오천개발
H. 010-3605-5000